

오셀로/셰익스피어

조광순(아주대 인문대 · 영문학)

『오셀로』의 작품세계

셰익스피어는 1599년과 1608년 사이에 일련의 비극작품을 썼다. 오셀로는 『햄릿』, 『리어왕』, 『맥베스』와 더불어 그의 최고 비극작품으로 꼽힌다. 셰익스피어는 1603년 아니면 1604년도에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작품에서 오셀로, 데즈데모나, 이아고와 같은 불후의 인물들을 창조하였다.

오셀로가 검은 피부의 흑인이냐 아니면 북아프리카의 바바리 지방에 거주하였던 갈색 피부의 무어인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오래 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이아고가 오셀로를 “바바리 지방의 말” (1막 1장 110행, 1막 3장 356행)로 부르고 있는 점에서는 그가 북부 아프리카의 무어족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오셀로는 자신을 “흑인이다”(2막 3장 29행, 3막 3장 267행)라고 말하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오셀로의 인종에 대한 확실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연에서 오셀로는 때로는 흑인으로 때로는 갈색 피부의 무어인으로 묘사되어 왔다.

『오셀로』 비평에서 중요한 문제는 오셀로의 피부색같이라기 보다는 이 호탕하고 쾌활한 성격의 주인공이 어떻게 의처증에 빠져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오셀로가 베니스의 백인사회에서 “타자”였다는 점이다. 그는 유럽의 백인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비유럽인 남성으로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었고 불이익을 받았다. 물론 오셀로가 전쟁에서 많은 공훈을 세워 베니스의 원로원의 신임을 얻어 키프로스의 총독으로 부임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베니스의 문화와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점이 있고 오셀로는 정체성의 혼돈을 겪었을 것이다. 베니스는 비유럽인종의 문화와 사상을 자신들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여기고 이들을 제외시켰다. 오셀로는 군사적 무훈과 신체적 건강함만으로는 베니스 사회에 편입될 수 없었다. 이아고는 이를 이용하여 오셀로의 마음에 데즈데모나에 대한 배신감과 부관 캐시오에 대한 불신을 심었다.

오셀로는 베니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오셀로가 키프로스의 총독이 된 것을 그가 진정으로 베니스에 동화되었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된 증거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마치 흑인이 백인의 옷을 입고 백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물론 오셀로는 타고난 시적능력과 사람을 사로잡는 웅변술로 자신의 무훈을 이야기함으로 데즈데모나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이아고로 대변되는 베니스의 자본주의적 냉혹함 앞에서 오셀로의 이러한 성공은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오셀로는 타고난 순수함과 따스함이 있지만 베니스 사회는 이러한 덕목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그런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오셀로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이아고의 악의에 희생이 된다. 3막 3장에서 오셀로는 이아고로부터 데즈데모나의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아파 침대에 눕는다. 이때 데즈데모나가 오셀로의 손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싸매 주려고 하나 오셀로는 손수건이 작다는 핑계로 이를 거절하며 데즈데모나는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288행). 나중에

이밀리아가 손수건을 집어서 남편 이야고에게 건네주고 이야고는 이를 데즈데모나의 부정의 확실한 증거로 오셀로에게 제시한다. 오셀로는 데즈데모나가 이 손수건을 이야고에게 정표로 준 것으로 확신하고 이로 인하여 아내를 목 졸라 죽게 된다. 오셀로는 이야고로 대표되는 베니스의 파괴성과 기만성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파멸 당한다. 오셀로는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여 그녀를 죽일 수는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아내와 한 마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다. 이야고에 의하여 철저하게 조작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오셀로는 베니스의 백인사회에서 타인종이 겪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해 준다.

이야고의 논리성과 치밀함은 오셀로의 고결함과 관대함과 대조를 이룬다. 오셀로는 가식과 조작을 갈파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에 처하게 된다. 반면에 햄릿은 자신을 죽이려는 클로디어스, 로젠크란츠, 길덴스턴과 끝까지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마침내는 이들을 죽임으로써 왕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덴마크의 무너진 정의를 회복한다. 이런 점에서 햄릿은 우유부단형의 인물이 아니라 홀로 악의 세력과 싸우다가 자신도 죽게 되는 비극적 영웅이나 오셀로는 철저한 성찰과 사유가 없이 악의 세력 앞에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오셀로의 비극성이 햄릿의 그 것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셀로가 타인으로서 베니스에서 살아온 것을 고려한다면 그의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이라기보다는 타인으로서의 비유럽인종이 당하게 되는 비극인 것이다.

데즈데모나는 오셀로의 오해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백인여성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셀로가 겉으로는 고결하고 관대한 것처럼 보여 지나 속으로는 질투심 많고 파괴적인 사람인 것처럼 데즈데모나도 겉으로는 나약한 여성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셰익스피어의 여성 중 가장 강한 여성중의 하나이다. 데즈데모나의 강인함은 그녀의 육체적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사상적 자유로움에서 나온다. 그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셀로와 결혼한다. 아버지 브라밴쇼의 반대는 베니스의 주류를 대표하는 견해이며 데즈데모나는 주류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자신 나름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을 가진 여자다.

데즈데모나의 진정한 용기는 오셀로의 의처증으로 교살을 당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데서 나타난다. 그녀가 교살된 후 다시 깨어나서 이밀리아에게 자신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주인에게 부탁한다고 말한다 (“내 사랑을 주인님한테 전해 줘” 5막 2장 125행). 데즈데모나는 이야고 때문에 남편을 잃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남편을 다시 얻게 된다. 그녀가 끝까지 오셀로를 남편으로 인정하면서 죽은 것은 오셀로의 우둔함과 충동에 대한 진실함과 용기의 승리이다. 오셀로는 데즈데모나의 입을 막을 수는 있었으나 데즈데모나의 사랑을 저지할 수 없었다.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셀로는 마치 리어왕이 죽은 코델리아를 안고 울부짖듯이 죽은 데즈데모나를 바라보며 그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오셀로는 데즈데모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일식과 월식이 일어났으며 지진이 있었다고 말한다 (5막 2장 100-102행). 오셀로의 이 대사는 예수가 죽은 후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났던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오셀로에게 있어서 데즈데모나는 구원자이다. 결국 오셀로는 데즈데모나를 죽였지만 역설적으로 데즈데모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끊어질 수 없음이 입증된 셈이다. 1962년도에 임춘앵 여성국극단은 오셀로를 『흑진주』라는 이름으로 공연하였는데 이 공연에서 천민출신의 오셀로가 양반출신의 데즈데모나와 결혼한 후 질투 때문에 아내를 죽이나 두 사람이 천국에서 화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러한 개작은 끊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사랑을 보여 준다.

이야고는 낭만주의 비평가 콜리지(Coleridge) 이래로 “동기가 없는 악의를 지닌 악한”(motiveless malignity)로 해석되어 왔다. 몇몇 비평가들은 콜리지의 견해에 반대하여 이야고가 왜 오셀로를 파멸시켰는가에 대한 동기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들 비평가들은 동기로서 이야고의 캐시오의 승진에 대한 질투, 오셀로에 대한 미움 등을 거론한다. 이야고의 숨은 동기를 찾는 일은 셰익스피어의 다른 어떤 작품에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야고는 작품이 끝나갈 때 까지 아내 이밀리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인물을 속이고 이들을

마음대로 조정하였다. 이야고는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느끼고 이것이 이야고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그가 비극을 꾸민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야고의 거의 신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그에게서 오셀로에게서 느끼는 연민과 공포를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출중한 고결함과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과멸을 겪는 오셀로는 인간의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서 관객이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지만 이야고에서는 냉혹한 살인범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오셀로의 주인공은 오셀로이지 이야고가 아니다. 셰익스피어는 이야고를 통하여 순수 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 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오직 사악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오셀로는 『햄릿』, 『리어왕』, 『맥베스』와는 달리 배경이 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위의 다른 비극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남편의 의처증이라는 진부한 것처럼 보이는 소재를 통하여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사랑과 증오, 인종주의, 결혼, 성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셀로』는 셰익스피어의 또 하나의 걸작이다. (이 글은 조광순 역, 『오셀로』(동인: 2009)의 역자후기를 전재한 것임)

『오셀로』의 주요 부분 해설

다음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해설을 달았다. 『오셀로』의 주요한 주제로서 “질투” 특히 “의처증”, “인종주의”, “성”, “결혼”, “정체성” 등을 들 수 있는데 각 지문의 막 장 행 표시 다음에 나오는 괄호 안에 이를 표시하였다. 막, 장, 행 표시와 번역은 조광순역 『오셀로』를 따랐다.

① 1.1.97-1.1.102 (인종주의)

이야고 지금, 지금, 지금, 늙은 검은 수양이
당신이 새끼 양과 교미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종을 울려 코골고 자는 시민을 깨우십시오.
아니면 의원님이 악마의 할아버지가 될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뭐하십니까?

해설: 이야고는 검은 수양인 오셀로가 브라밴쇼의 새끼 양과 교미를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흑인은 동물적이고 강한 성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의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이야고는 브라밴쇼가 가지고 있는 혼혈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야고는 기독교인인 오셀로를 악마로 부르고 있다. 이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사람들이 흑인들을 악마로 보았는데 이는 악마가 흑인의 모습을 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후에 브라밴쇼는 오셀로가 데즈데모나에게 마술을 걸었다고 비난한다.

② 1.1.182-1.1.194 (정체성)

브라밴쇼 나쁜 소식은 사실이라더니, 애가 없어 졌어.
 이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괴롭게 살게 됐구나.
라더리고, 너 그 애를 어디서 보았느냐? 불쌍한 것!
 무어인과 같이 있다고 말했어? 누가 아비노릇을 하겠나?

그 애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 애가 나를 속일 생각을 다하다니
 그래 그 애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햇불을 더 갖고 와.
 친척을 다 불러. 둘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나?
 (...)

자식한테 배반을 당하다니!
 아버지들이여, 지금부터 딸들의 행동을 보고
 이들의 생각을 판단하지 마세요.

해설: 이 대사에서 브라벤쇼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브라벤쇼는 데즈데모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자마자 누가 “아비노릇을 하겠나”라고 말한다. 이는 브라벤쇼가 아버지요 지도층 인물임을 말해주는데 그는 데즈데모나와 오셀로의 애정도피행각으로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다. 브라벤쇼는 자식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여긴다.

③ 1.3.90-1.3.110 (정체성)

오셀로 위엄과 존경과 덕망을 갖추신 의원 여러분,
 고귀하시며 덕망을 갖추신 선배 분들,
 제가 이 의원님의 따님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따님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범한 잘못된 자초지종입니다.
 저는 말이 거칠고
 사람들이 쓰는 우아한 말을 잘 모릅니다.
 저의 두 팔은 7살부터 9개월 전까지
 진지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싸움과 전투와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말을 꾸미지 않겠습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면
 꾸미지 않은 저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약과, 마법, 주문, 마술을 사용하여-
 왜냐하면 이들을 사용했다고
 고소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사랑을 얻었는가를 말입니다.

해설: 이 대사에서는 오셀로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다. 우아한 말을 쓰는 베니스 사람과는 다르게 오셀로는 자신의 말이 거칠다고 말한다. 자신을 거친 전장에서 살아온 군인으로 소개한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다르게 데즈데모나와의 사랑을 정교한 말로 변호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웅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를 입증하고 있다.

④ 1.3.150-1.3.176 (인종 / 정체성)

오셀로 그녀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종종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한 해 한 해 살아온 이야기를 항상 물었습니다.
 전쟁과 함락과 제가 겪었던 행운에 대하여 말입니다.

저는 저의 소년 시절부터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때까지의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경우들,
 바다와 육지에서의 흥미진진한 모험들,
 성틈 사이로 죽음을 무릅쓰고 아슬아슬하게 도망친 일들,
 무지비한 적군에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팔린 일,
 자유의 몸이 된 일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했습니다.
 험준한 절벽, 바위에 관하여,
 꼭대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산에 관하여,
 거대한 동굴과 황량한 사막에 관하여,
 이것들에 관하여 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순서대로 말입니다.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종 이야기,
 사람을 잡아먹는 부족들,
 머리가 어깨 밑으로 자라는 사람들 이야기,
 이 이야기를 데즈데모나는 진지하게 들곤 했습니다.
 집안일이 생겨 일어서곤 했으나
 급히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귀를 쫓긋하고
 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차에 그녀로부터 적당한 기회에
 부분적으로 듣고 자세하게 듣지 못한 저의 무용담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해설: 이 부분에서 오셀로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식인종, 머리가 어깨 밑으로 자라는 사람들을 보았으며 이러한 자신이 흥미진진하고 외국의 문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오셀로의 모험담은 실제적으로 유럽의 탐험가들이 기술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존 맨드빌이 쓴 『존 맨드빌의 모험과 여행』에서 머리가 어깨 밑으로 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오셀로는 흑인의 시각이 아닌 백인의 시각을 채택함으로써 당시의 전형적인 흑인의 모습을 거부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브라벤쇼가 오셀로를 초청해서 딸과 함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데즈데모나의 결혼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방인인 오셀로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⑤ 1.3.321-1.3.324 (인종주의)

공작 그렇게 하세나.
 여러분, 나중에 봅시다. [브라벤쇼에게] 의원님,
 덕목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의원의 사위는 흑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네.

해설: 공작의 오셀로에 대한 견해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는 사뭇 다르다. 오셀로가 데즈데모나에게 마술을 걸었다는 브라벤쇼의 주장에 대하여 공작은 오셀로가 덕목을 갖춘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를 변호한다. 오셀로는 흑인이지만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⑥ 1.3.413-1.3.425 (질투)

이아고 캐시오가 안성맞춤이지. 두고 보자.
 양쪽을 다 속여서 부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모자에 깃털을 꽂아? 어떻게 어떻게 글썩.
 얼마 지난 후에 오셀로를 속여서
 캐시오가 그의 아내와 같이 지낸다고 하는 거야.
 캐시오는 여자로 바람나게 한다고 의심받을
 풍채와 매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무어인은 정직하고 귀가 얇아서
 사람을 걸만 보고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나귀처럼 코가 꺾어 끌려 다닐 거야.
 생각이 떠올랐어. 계획이 잉태했어.
 지옥과 밤이 이 괴물을 세상의 빛으로 인도할 거야.
 [퇴장]

해설: 이아고는 오셀로의 마음에 질투의 씨를 뿌리고자 계획한다. 이아고는 오셀로의 장점인 정직성과 개방성을 이용하여 그를 질투의 희생물로 삼고자 한다. 이아고는 자신의 계획을 괴물로 묘사하고 있고 이 괴물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 볼 것을 관중에게 요구한다.

⑦ 3.3.190-3.3.196

이아고 오, 상관님 의처증을 조심하십시오.
 이 푸른 눈을 가진 괴물은
 질투라는 먹이를 가지고 놓니다.
 아내의 부정을 알고
 그녀를 미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남편입니다.
 그러나 오, 곱씹고, 의심하면서 치정에
 빠지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해설: 오셀로는 자신이 심은 질투에 의하여 스스로 망하게 된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질투는 의심을 가지고 논다.

⑧ 3.3.203-3.3.218 (질투)

오셀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달이 차고 기울어지듯이 내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의처증에 빠졌다는 뜻인가? 아니네.
 나는 한번 의심이 들면 이를 한 번에 해결하네.
 자네 생각대로 내 영혼이 허황되고 부풀려진
 의심에 사로잡힌다면 차라리 염소가 되겠네.
 내 아내가 아름답고, 잘 먹고, 사람과 사귀고,
 수다쟁이고,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춤춘다고 하여
 내가 질투하지 않네.
 정숙한 여자에게 이런 것들은 금상첨화이지 않는가.

내가 매력이 없다고 하여
 그녀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네.
 그녀가 보는 눈이 있어 나를 택하지 않았나.
 아닐세, 이아고. 의심하기 전에 내 눈으로 보겠네.
 의심스러운 경우 증거가 필요하네.
 이 증거가 있을 경우 한 가지 밖에 없네;
 사랑 아니면 질투로 죽이는 거지!

해설: 이아고는 데즈데모나가 부정하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대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백인여자인 데즈데모나가 흑인 남자 오셀로와 결혼한 것은 당시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셀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는 오셀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오셀로는 데즈데모나가 자신을 선택한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한다. 이아고는 오셀로가 백인이 주류인 베니스사회에서 흑인으로 살아가는 소수자요 타자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아고는 오셀로가 보잘 것 없는 인물임을 강조한다. 이아고의 논리로 인하여 오셀로의 데즈데모나에 대한 질투는 극을 치닫게 된다.

㉑ 3.3.225-3.3.232 (질투)

이아고 부인께서 캐시오와 함께 있을 때를 눈여겨보십시오.
 질투하지도 말고 자족하지도 마십시오.
 장군님의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성격 때문에
 아량이 지나쳐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을 잘 압니다.
 베니스에서는 남편이 모르는 음탕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끊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을
 최고의 도덕으로 여깁니다.

해설: 르네상스 시대에 베니스는 환락의 도시였고 베니스 여인들의 부정은 유명했다. 베니스에는 수많은 고급 창녀들이 있었다. 이들은 남편을 두고도 여러 명의 외간 남자를 사귀었다.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데즈데모나가 베니스의 고급 창녀라고 암시한다. 4 막 2 장 105 행에서 오셀로는 데즈데모나를 “베니스의 간사한 창녀”로 부르고 있다.

㉒ 3.3.265-3.3.275 (인종)

이아고 바로 그 점입니다. 장군님께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같은 나라, 같은 피부, 계급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타락한 의도, 흉측한 괴물, 비도덕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부인이 딱히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욕정을 의심합니다만
 정상적인 분별력을 찾게 되면
 장군님과 베니스의 풍채 좋은 남자들을 비교하고는
 아마도 뉘우칠지도 모릅니다.

해설: 이야고는 데즈데모나가 같은 나라, 같은 피부, 같은 계급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오셀로와 결혼한 것을 비정상적이고 타락한 것으로 본다. 타락했다는 단어는 성병을 의미하는데 데즈데모나가 성적인 문란함으로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이야고는 데즈데모나가 오셀로와의 결혼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야고는 오셀로가 품고 있는 의심을 지적함으로써 쉽게 그를 조작한다. 그렇다면 오셀로는 베니스사회의 인종주의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⑪ 3.3.306-3.3.318 (결혼)

오셀로 저주스런 결혼이여
 남자들은 이 부드러운 존재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나
 이들의 욕정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나는 일부만 갖게 된다면
 차라리 감옥의 더러운 공기를 먹고사는
 두꺼비를 기르는 게 낫지.
 이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니
 이들이라고 미천한 사람들보다 안전하지 않지.
 결혼은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남자들은 뱃속에서 태동을 할 때
 오쟁이 남편이 될 운명이 정해졌다. 저기 아내가 오는구나.

해설: 오셀로에 의하면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모든 남자는 오쟁이 남편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오셀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셀로는 이야고가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데즈데모나의 부정을 믿게 된다.

⑫ 3.3.370-3.3.373

이야고 공기처럼 가벼운 사소한 것도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성서의 말씀만큼
 강력한 증거가 되지.

해설: 이야고는 오셀로에게 데즈데모나의 부정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의심만으로도 오셀로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데즈데모나는 오셀로로부터 받은 손수건을 잃어버리고 이필리아는 이를 우연히 줌게 된다. 이야고는 이필리아가 주운 손수건이 성서만큼이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을 확신한다.

⑬ 3.3. 477-3.3.489 (성)

이야고 내면의 생각을 참지 못하고 발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시오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잠결에 “사랑스러운 데즈데모나. 조심하고 사랑을 숨기시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비틀더니
 “오, 달콤한 그대여”하며 열렬히 키스했습니다.
 마치 저의 입술에 있는 키스를

뿌리째 뽑기라도 하듯이.
그리고는 발을 저의 허벅지에 걸치고
한숨짓고,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해설: 캐시오는 자면서 잠꼬대를 한다. 이아고는 캐시오가 데즈데모나와의 성관계를 발설했다고 말한다. 이 장면은 성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한다. 첫째, 캐시오가 데즈데모나와 동침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아고와 캐시오간에 동생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셀로가 질투하는 것은 캐시오가 데즈데모나와 동침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캐시오가 이아고와 동성애를 나누었기 때문인가? 두 가지 다 가능하다.

⑭ 5.2.422-4.2.441 (정체성)

오셀로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를 위하여 일을 했고 국가도 이를 압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편지에서 이 불행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현재의 저에 대하여 적어주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악의로 쓰지도 마십시오.
한 사람이 절도를 지키지 못하고
지나치게 아내를 사랑했다고요.
여간해서는 질투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성을 잃고 속았다고 말입니다.
무지한 인디언처럼 부족보다 더 귀중한 진주를 버렸다고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눈이 슬픔에 잠겨
아라비아의 나무에서 몰약이 나오듯이
눈물을 흘린다고 말입니다. 위의 사실을 적어주십시오.
덧붙여 알레포에서 터반을 두른 사악한 터키인이
베니스 인을 구타하고 모욕한 것을 보고는
이 할례 받은 개의 먹살을 잡고
그를 이렇게 찌른 적이 있다고 적어주십시오.
(자신을 찌른다.)

해설: 이 부분에서 오셀로는 16세기 인종주의적 편견을 보여준다. 오셀로는 데즈데모나를 무고하게 죽인 사실을 알고는 자신을 진주를 버린 인디언으로 비유한다. 당시에는 북미의 인디언이나 흑인들이 천박하고 미개하다고 생각되었다. 유럽인들은 인디언들이 보석을 쓸모없는 목걸이와 맞바꾼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즉 인디언들은 너무 무지하여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셀로는 진주인 데즈데모나를 버렸다. 진주는 순결을 상징한다.